

“비전과 가치로 23회 축제 설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

지역 매아리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 한라대 관광경영학과 신현식 겸임교수 총감독 선임

사)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진용훈)는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신현식 겸임교수(42)를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진용훈 위원장은 “올해가 2년 연속 대표축제의 명성을 지키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때인 만큼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총감독님으로 모시게 됐다”라며 “총감독님과 합심해 무주반딧불축제가 친환경축제에서 생태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신현식 총감독은 2017-2018 평창윈터페스티벌 총감독(평창송어축제 강원도 우수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 유망

감독으로 승격)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개최지역(평창, 강릉, 정선) 겨울 축제 전문위원, 2018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컨설팅 위원, 2017 새만금노마드페스티벌 총감독, 2015-2016 영덕대게축제 총감독(경상북도 최우수 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승격), 2013-2014 평창효석문화제 총감독(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을 지내며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12일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신 감독은 “이번 축제는 20여 년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무주반딧불축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축제, 도시브랜드와 문화생태계 구축 축제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축제 주제

와 특성에 맞도록 장소와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0여 년을 지나오며 안겨 된 문제들을 방치해 줘야 극복하고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가치로 23회 축제를 설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설의 유지보수와 리모델링비 및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군비는 물론 이후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시설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열 의원은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4년간 의료원 운영현황의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직원 친절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장례복지 차원의 장례식장 운영 관리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건강검진실의 효과적 홍보를 통한 수검인원 확대와 의료원 운영의 국가예산 지원 확대 노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파견 제안, 의료원 활성화와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강은희 부의장은 진안군 농업보조금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11일 질의자로 나선 이우규 의원은 용담호 주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용담호 주변 휴게소와 쉼터 등 군 소유 시설이 건립 및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의 유지보수와 리모델링비 및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군비는 물론 이후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막대함에 따라 시설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열 의원은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및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4년간 의료원 운영현황의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직원 친절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장례복지 차원의 장례식장 운영 관리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건강검진실의 효과적 홍보를 통한 수검인원 확대와 의료원 운영의 국가예산 지원 확대 노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파견 제안, 의료원 활성화와 효율적 경영개선 방안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강은희 부의장은 진안군 농업보조금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자본형성력 보조사업의 증·편중 지원 및 근시안적 보조금 지원 결정 등 농업보조사업의 신중한 사업자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옥주 의원은 진안군 농민수당 지급방안과 관련하여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타 지자체 추진현황에 따른 우리 군의 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박관순 의원은 서원과 사우의 향토 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서원, 사우 등 현황 파악과 관리비 및 제례 행사비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군 소유 토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및 매각과 군유지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재검토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산정을 위한 내부 규정 제정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신갑수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산불감시 활동적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강은희 부의장은 진안군 농업보조금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1일 생활권역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무주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주민생활을 향상시켜보자는 의견이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주군 의회 이해양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무주~서울 간을 운행하는 직통버스는 서울행 첫차가 9시 45분, 무주행 마차가 오후 2시 35분이어서 서울이 1일 생활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만에 무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를 더 소요하면서 대전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주는 지리적 위치를 놓고 컴퍼스를 돌려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과 2시간대 소요거리인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서울과 1일 생활권에 들지 못하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군민들은 오랜 세월 시간과 요금, 그리고 장거리 피로도 면에서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언젠가는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첫차 배차시간을 더 앞당기고, 마차 시간도 더 늦은 시간으로 재편성해 균형감 있는 배차간격을 조정하거나 증차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지난 12일 장영수 군수, 김종문 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정신통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노인성 3대 질환 치매 체계적 관리한다

장수군, 치매정신통합센터 개소식 개최

장수군이 치매정신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노인성 3대 질환인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수군은 지난 12일 장영수 군수, 김종문 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유관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정신통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장수군 치매정신통합센터는 연면적 794.94㎡(240평) 지상2층 규모로 사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진료실, 쉼터,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갖

추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4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치매정신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단기 보호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쉼터운영, 치매가족 1:1 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한 치매가족 지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센터 내 치매관련서적 비치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지역의 통합적

치매 관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개소식은 장수읍 풍물단의 풍물놀이 식전행사와 경과보고, 군수 기념사와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유봉욱 원장은 “내실있는 치매정신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로부터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장수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컨설팅 지원

무주군, 오는 26일까지 신청 ... 9곳 선정

무주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상담 장구를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4월 26일까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신청(320-2327)하면 된다.

무주군은 신청 음식점들에 대한 현장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60점 이상 받은 업소 9곳이 현장컨설팅(업소당 2회) 대상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우리 군에도 지정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와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군 음식점들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수준이 같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2017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정 신청 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확대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업소에게는 2년 간 출입, 검사 면제,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용자 우선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무주군 자체적으로는 관광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제작 시 해당 업소를 우선 게재하고 홍보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마이산남부상가거리 '새단장'

진안군은 지난 12일 벚꽃 개화 시점에 맞춰 마이산 남부 상가거리를 말끔히 단장해 상춘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래 숙원사업인 마이산 남부 상가거리 정비공사는 지난해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불법건축물과 노상적치물 철거에 있어 상가번영회 상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봄·가을 성수기 탐방객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연초 상가번영회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합의를 거쳐 2월 재 착공하여 벚꽃 성수기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비공사는 약 1억8천만원을 들여 마이산남부 차량 통제소에서부터 금당사 입구 약 300m 구간에 보도블럭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했으며, 우수관 정비와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을 마쳤다. 또한 상가 식당 입구에 위치해 있던 사할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도 상가 위쪽 금당사 앞으로 이전 완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